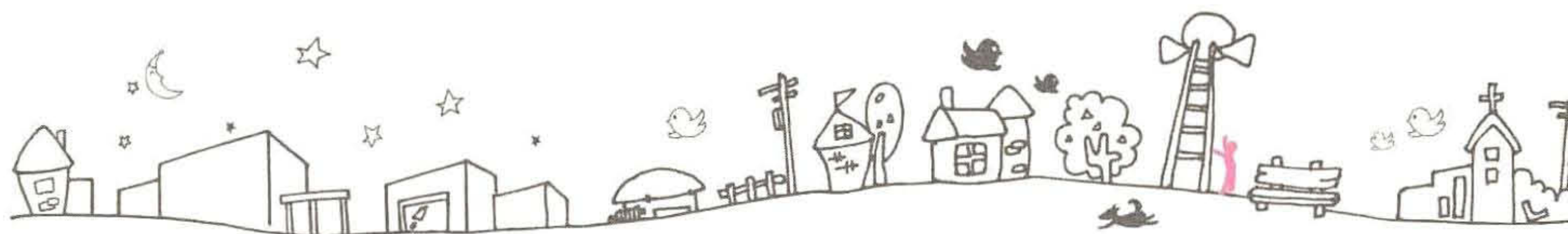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2015년 1년차 · 2016년 2년차 · 2017년 3년차]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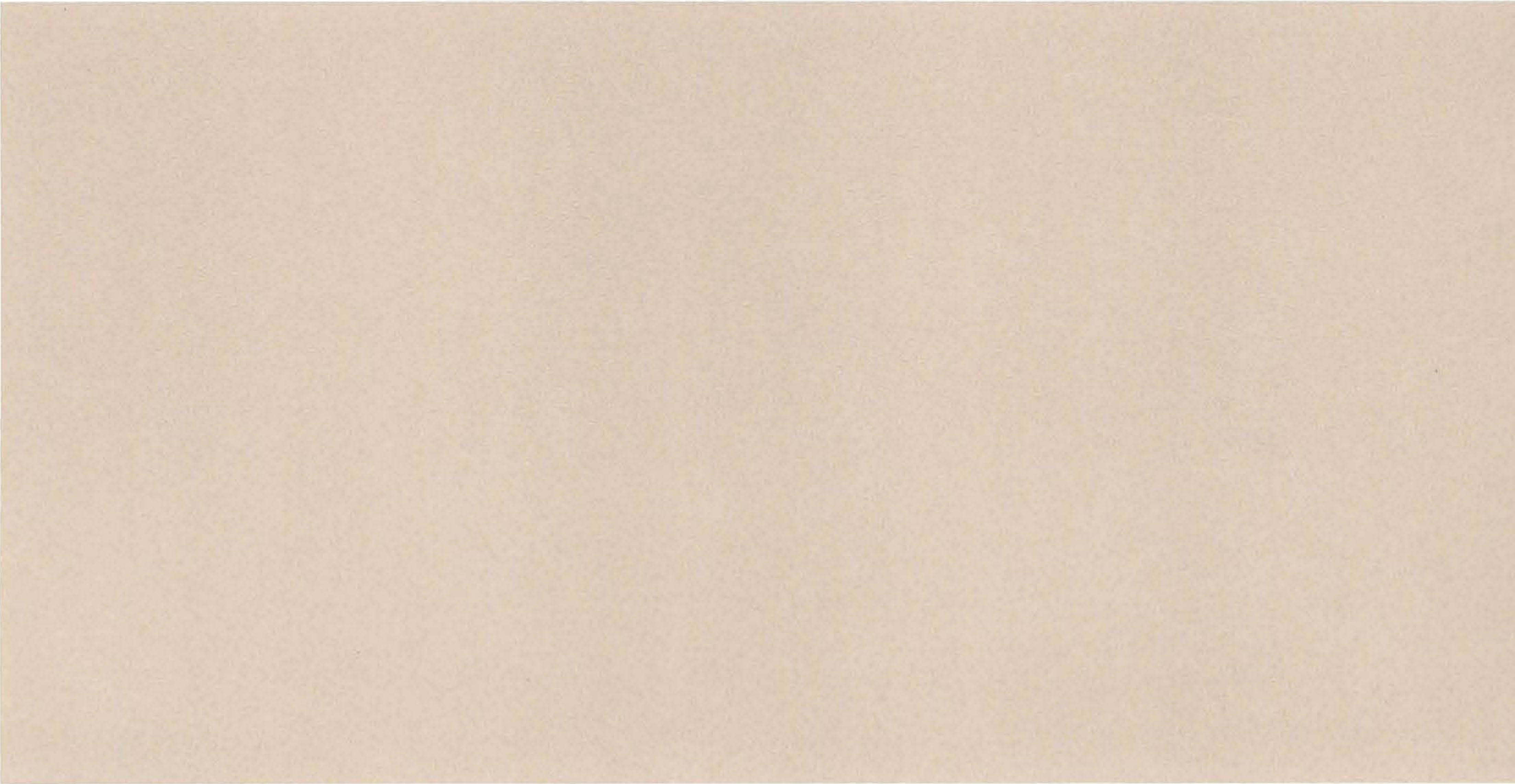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LEEUNGNOM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

[2015년 1년차 · 2016년 2년차 · 2017년 3년차]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

들어가는 말	05
2015년 1년차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간 ^{時間} ’을 기억하다	06
2016년 2년차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간 ^{時間} ’을 기억하다	24
2017년 3년차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간 ^{時間} ’을 기억하다	46



2017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VILLAGE

초대합니다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2017. 11. 4(토) 11:00

개막프로그램

1부 (11:00~11:30)

마을회관 “별의별 공간” 둘러보기
마을도서관(북카페) 차와 담소
기념관 이동

2부 (11:40~12:00)

마을 ‘풍물패’ 공연
기념관 제3회 고암미술상 수상작가전 관람

3부 (12:00~14:00)

마을다큐 영상 관람
홍성예총_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점심식사_이응노생가마당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중치는 사람’은 마을의 중심이 사람이며 모두가 주인이자 변화의 리더라는 상징을 담는다.

〈중치는 사람〉,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우레탄도색, 60×60×220cm, 2015, 홍상식



‘이응노마을’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는 주민들과 함께한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이응노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2017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3년의 시간은 짧고도 긴 시간이다. 더 ‘잘하고 싶어 아쉽다’는 욕망에서는 짧은 시간이고, 더 ‘잘 못해 부끄럽다’는 자책에서는 긴 시간이다.

3년의 시간, 이응노마을에서의 시간은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뒤범벅된 나날이었다. 그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여기에 시간을 담는다. 3년의 시간을 담는다.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3년간 이응노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시간을 담았다. 시간의 결속에 그들과 울고 웃으며 울며 함께 한 시간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는 ‘기억의 오래된 변명’을 조금이라도 대답하기 위해 여기, 그들과의 시간을 담고, 그들과의 시간을 기억한다.

그 시간의 기억이 소중한 까닭은, 과거에만 매이지 않으려는 선택이다. 그리고 미래의 소중한 기억으로 펼쳐려는 선택이다. 선택의 순간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사진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온다. 보고 싶은 그들이 춤추듯 뛰며 생동감이 넘친다.

여기, ‘시간을 기억하다’는 도록을 발간하면서, 이미 마을신문과 결과책자에 담긴 사진은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준 ‘이응노마을’ 주민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활짝 웃는 미공개 사진들을 골라 실었다. 주민들의 표정이 살아서 오듯이 맑은 사진들로 꾸며졌다.

이 주민들의 3년간 마을 사업을 함께 하며 남긴 기록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지만,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진을 골라 도록에 담는다.

이렇게 꾸민 마을주민들의 ‘홍천마을엔 별고 많고-시간^{時間}을 기억하다’ 도록은 마을의 영원한 문화자원으로, 마을의 소중한 역사로 남기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을의 건강한 미래가 열린 그 어느 날, 이 영원한 문화자원, 이 소중한 역사를 꺼내는 주민들의 표정이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3년 동안 이응노마을 사업을 함께한 주민들과 지켜봐주신 모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영선(이응노마을 총괄감독 · 홍성생태학교 나무 이사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5년 1년차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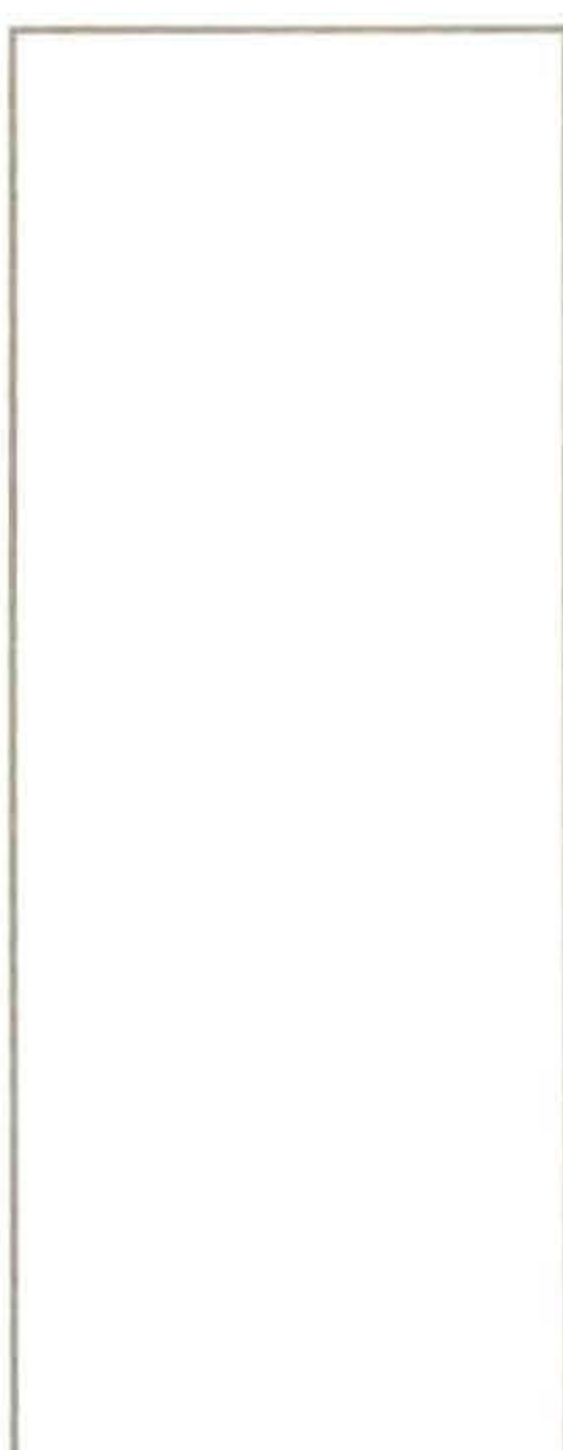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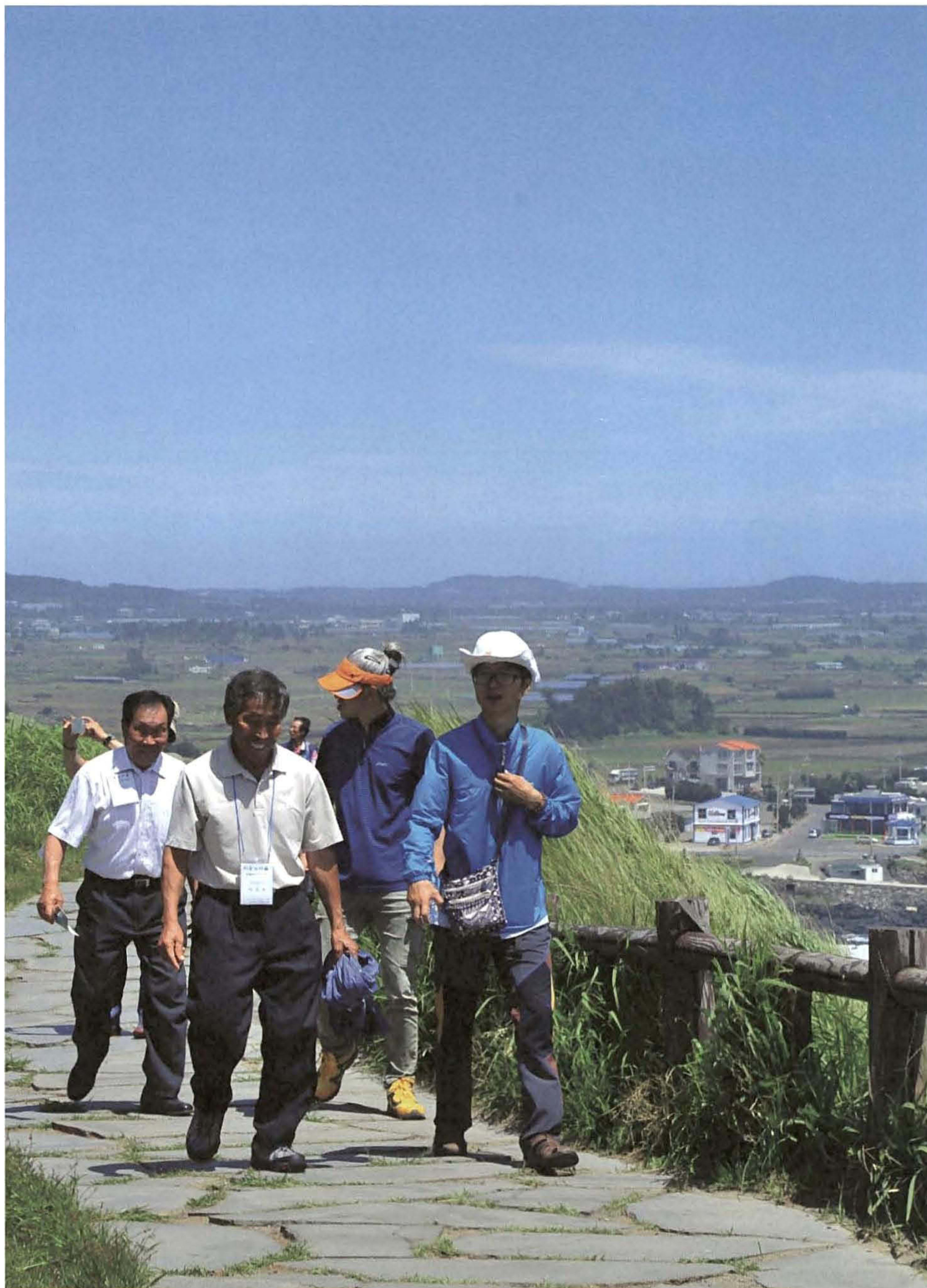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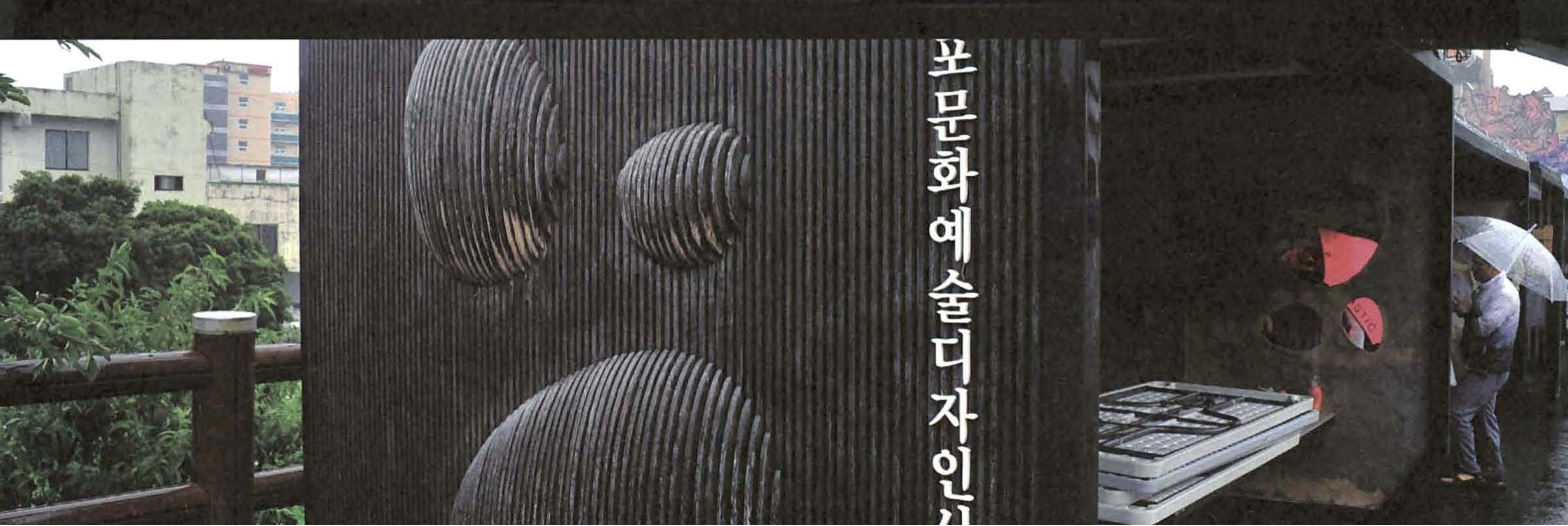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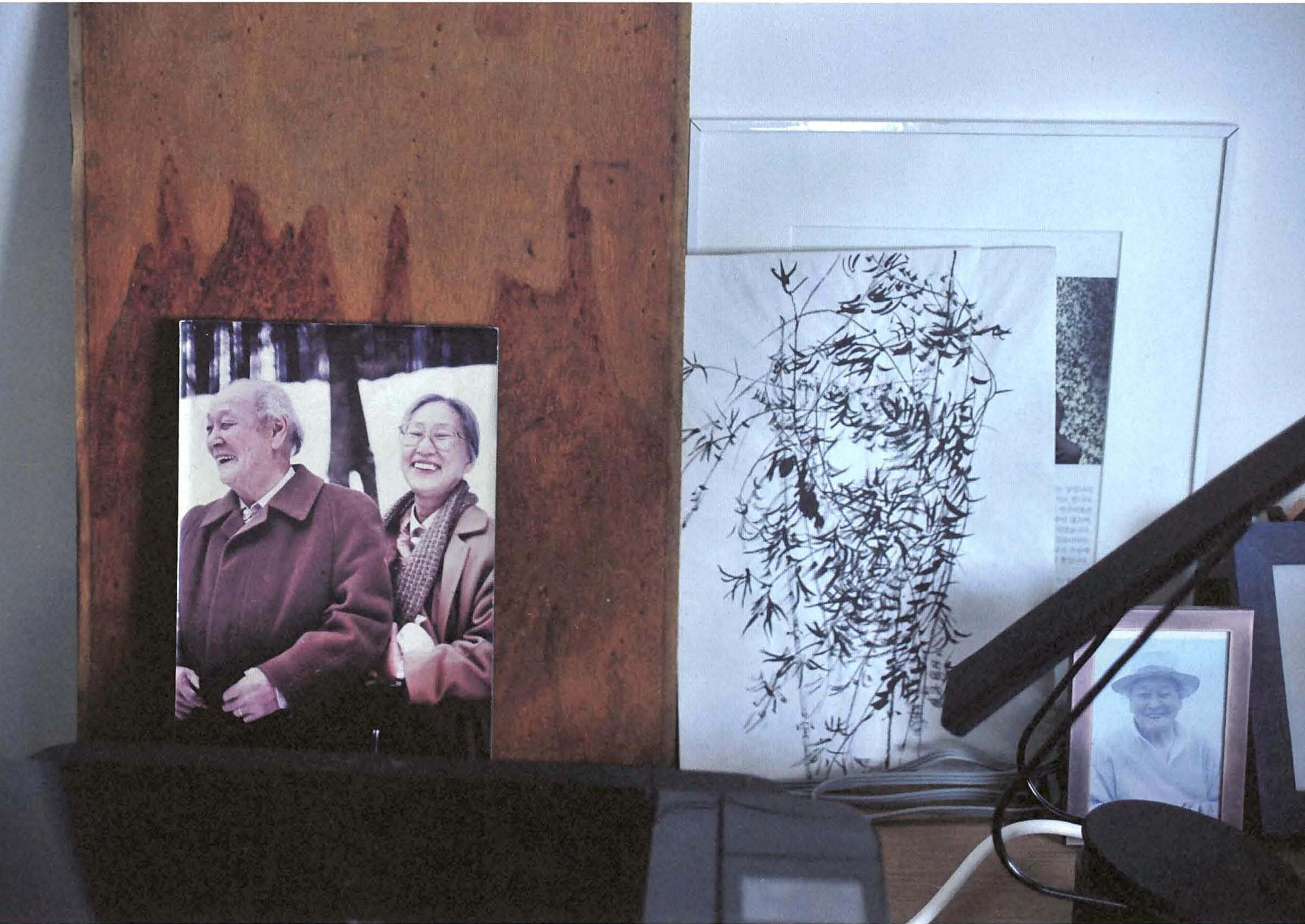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6년 2년차 이용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간^{時間}’ 을 기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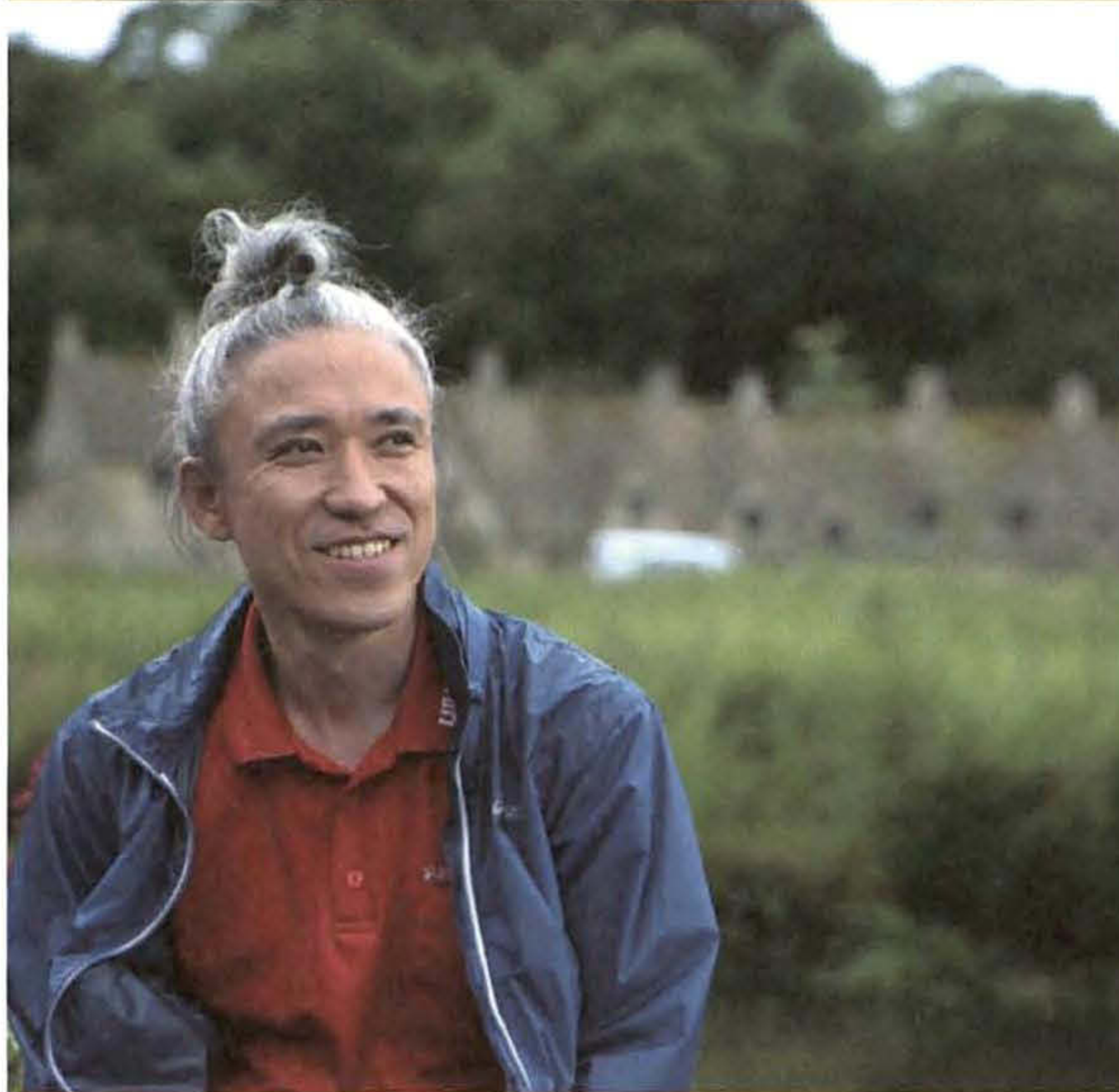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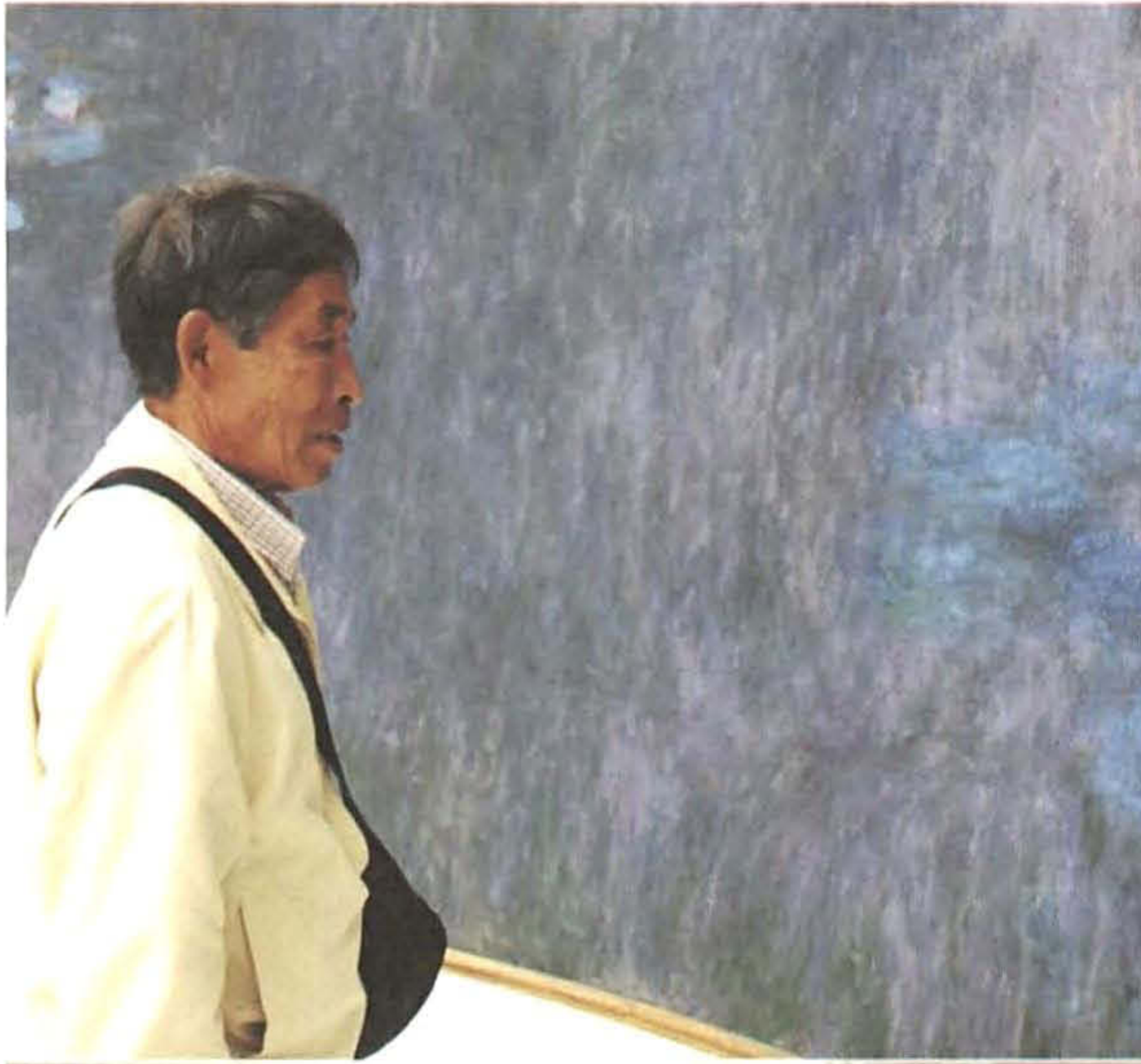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7년 3년차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별의별’ 세 번째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 ‘시간^{時間}’을 기억하다

2015년 1년차 · 2016년 2년차 · 2017년 3년차

본 도서는 201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 홍성군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주관처에게 있습니다.

발행인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발행일

2017. 11. 04

발행처

홍성생태학교 나무 www.econamu.com

주소 | 322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43번길 49

전화 | 041-635-9101

팩스 | 041-635-9105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홍성군

주관

이응노마을 거버넌스운영위원회, 홍성생태학교 나무

기획총괄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편집 · 취재

전상진

기획운영

김두홍

영상

총괄감독 노보성

촬영팀 고현진, 김정용, 김지환, 박지현

도록제작

(주)공감

주소 32244 충남 홍성군 대학길 25

전화 | 041-631-1997

팩스 | 041-631-199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조창희

디자인 · 편집 | 김지혜

출력 · 인쇄 | (주)대진종합인쇄

“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 고향마을로 돌아오다 ”